

## 1. 머리말

조선후기 소설에 대한 인식이 심화·진전되는 가운데, 評點이라는 새로운 비평 양식이 도입된 評點本 소설의 등장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평점본 소설이란 評點이라는 독특한 형식의 비평이 붙어있는 소설작품으로 강한 창작·비평의식이 나타난 본격적인 문학비평이 이루어져 있어서 문학사 및 문학비평사적 의미가 크다. 評點이라는 비평형식은 중국 고대시문비평에서 출발하여 점차 小說, 筆記類의 비평에 도입되었고,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김성탄의 문학비평에 의해 형식의 정립과 비평의식의 질적인 향상이 실현되었다. 평점본 <西廂記>와 <水滸傳>으로 대표되는 김성탄의 문학비평은 독특한 평점의 형식, 개성적인 문학관, 구체적인 작품분석 그리고 다채로운 비평수법으로 중국에 풍미하였을 뿐 아니라 18세기에 조선에도 전래되어 많은 문인들에 의해 애독되었다.<sup>1</sup>

한국에 評點本 소설이 등장한 것이 19세기였다. <折花奇談><sup>2</sup>은 1809년 창작된 章回體 한문소설로, 저자는 石泉主人, 평자는 南華散人이고 총 3회 72면으로 되어 있다. 다른 評點本 소설인 <漢唐遺事><sup>3</sup>는 朴泰錫(1834~?)에 의해 1852년에 창작되고 雲水道人의 評註가 달려있다. 총 13권 88회로 되어있는 장편한문소설이다. <춘향전>의 한문이본인 <廣寒樓記>도 8회로 되어있는 評點本 한문소설이다. 정확한 창작시기에 대하여 아직 논란이 있지만 <廣寒樓記>를 19세기 작품으로 보는 것에 별 이의가 없다.<sup>4</sup> <廣寒樓記>의 저자는 ‘水山’이고, 평자는 ‘小巖主人’이며 편집자와 서를 쓴 사람이 ‘雲林樵客’이라는 인물이다. <折花奇談>, <漢唐遺事>, <廣寒樓記> 셋 작품이 선후로 나타나 평점이라는 특수한 비평 양식을 이용하여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필자는 이처럼 19세기 한국에 연이어 평점본 소설이 창작된 것이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김성탄의 문학비평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창작·비평의 동기, 평점의 형식, 비평론 등 여러 면에서 이 셋 작품과 김성탄 문학비평의 관계를 비교 고찰하여 한·중 문화 교류의 시각에서 한국 평점본 소설의 형성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창작 동기의 형성

<sup>1</sup> 줄고, <조선후기 김성탄 문학비평 수용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2, 26~36쪽 참조.

<sup>2</sup> 鄭良婉, <일본 동양문고본 고전소설해제>, 국학자료원, 1994

<sup>3</sup> 朴泰錫, <原文 和漢對照 漢唐遺事>, 朝鮮研究會, 1915

<sup>4</sup> 鄭夏英, 「廣寒樓記 연구」, <이화어문논집> 12호, 1992, 573~574쪽 참조.

金東旭, <증보 춘향전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76, 83~87쪽 참조.

소재영, 「자료해제 水山 廣寒樓記」, <송실어문> 4, 송실대 국문과, 1987, 200쪽 참조.

성현경 외, <水山 廣寒樓記 역주 연구>, 164쪽 참조.

김성탄이 생활한 명말·청초에는 문인들이 소설, 희곡 등을 소일거리로 많이 읽기는 해도 그것들을 “小道”라고 지목하고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 김성탄이 어떻게 무시당하던 <서상기>에 관심을 갖고 비평하였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수만만년의 세월이 마치 물이 흐르고 구름이 휘말리며, 바람이 지나가고 번개치는 것처럼 모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금년 今월에 이르러 내가 잠시 있게 된다. 이 잠시 있게 된 나도 어찌 물이 흐르고 구름이 휘말리고 바람이 지나가고 번개가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도 내가 아직 여기에 잠시 존재하는 것이 다행이다. 아직 여기에 잠시 존재할 바에야 나는 어떠한 消遣法으로 消遣해야 하는가?…… 나는 消遣할 방법이 없던 중에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消遣할 뿐이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후세 사람들이 내 글을 읽을 것은 역시 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휘날리며, 바람이 지나고 번개가 치는 것을 어쩔 수 없어 내 문장을 가지고 스스로 消遣할 뿐이다. …… 아! 고인(<서상기>의 저자를 가리킴.)의 재능과 식견이 나보다 열배 이상 뛰어나므로 나는 그에 대하여 통곡하고자 하나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서상기>를) 評點하고 간행해주는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評點해 주고 간행해주는 것으로 통곡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고인에 대하여 통곡하는 것은 고인을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또 하나의 消遣法이다.<sup>5</sup>

위 인용문에서 김성탄은 인생의 消遣法으로 <서상기>를 평점, 간행한다고 하였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지은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후대사람들에게 消遣할 것을 남겨줌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보람있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여 김성탄은 대중문학의 창작과 비평을 통하여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서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자는 자아실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상기>를 평점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동기는 조선조의 평점본 소설에 거듭 발견되었다. <漢唐遺事>의 서문에 저자 朴泰錫이 소설을 짓고 논평한 동기를 자술하였다.

무릇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석화가 한 순간 튀어나는 것처럼 빠르고 물거품처럼 허황한데 消遣할 방법이 없어 몹시 괴롭고 답답하다. 그러므로 (나는) 消遣法이 없던 중에 억지로 消遣法을 만들어 이 책을 저술하고 교정, 논평하였다. 잠시 존재하는 나에게도 消遣法이 없은즉 잠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들도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消遣法이 없던 중에 억지로 消遣法을 만들어 스스로 消遣하고 아울러 다른 사람이나 후인에게도 남겨주는 것이 또한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sup>6</sup>

<sup>5</sup> 김성탄, 「통곡고인」, <서상기>, 같은 책, 3~6 쪽. 幾萬萬年月 皆如水逝雲卷, 風馳電掣, 無不盡去. 而至于今年今月而暫有我. 此暫有之我, 又未嘗不水逝雲卷, 風馳電掣而去而疾去也, 而幸而猶尙暫有于此. 幸而猶尙暫有于此, 則我將以何等消遣以消遣之?……我亦于無法作消遣中, 隨意自作消遣而已矣. 後之人之讀我之文字, 我則已知之耳, 其亦無奈水逝雲卷, 風馳電掣, 因不得已而取我之文自作消遣云爾……嗟乎! 是則古人十倍于我之才識也, 我欲慟哭之, 我又不知其爲誰也, 我是以與之批之刻之也. 我與之批之刻之, 以代慟哭之也. 夫我之慟哭古人, 則非慟哭古人, 此又一我之消遣法也.

<sup>6</sup> 朴泰錫, 「漢唐遺事 序」 같은 책, 1 쪽. 夫人生此世 疾如石火 幻如泡花 而消遣無法 極可憐悶 故於無消遣之中 強生消遣法 述此而校之評之耳 夫以暫之在我 既無以消遣 則暫在之他人與未來之人 亦復如是 故以無消遣中強生消遣法 自以消遣而兼遺爲他人與未來人 亦何不可之有.

박태석과 김성탄이 피력한 창작 비평의 동기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두 사람이 모두 인생이 짧고 무상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성탄은 인생을 마치 “물이 흐르고 구름이 휘말리며, 바람이 지나가고 번개가 치는 것처럼” (水逝雲卷, 風馳電掣), 박태석은 “석화가 한 순간 튀어나는 것처럼 빠르고 물거품처럼 허황하다” (疾如石火 幻如泡花)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현재의 자아를 모두 ‘잠시 존재하는 나’ (暫有之我)로 표현하고 그 귀중함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두 사람은 모두 문학작품의 창작과 비평을 ‘消遣法’ 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후세 사람들에게도 심심풀이를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차이점이라면 김성탄이 제시한 “통곡고인”이라는 명목이 박태석의 글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김성탄은 기존 작품인 <서상기>에 대한 평점을 하였던 것이고, 박태석은 새 작품을 직접 창작하기 때문에 ‘고인’으로 지칭할 원저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두 사람은 모두 대중문학의 창작과 비평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이루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한당유사>의 저자, 평자가 김성탄의 문학비평에서 제시한 창작, 비평의 동기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춘향전>의 한문본인 다른 평점본 소설 <廣寒樓記>에도 창작, 비평의 동기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되어있다.

<廣寒樓記>를 지은 사람은 분명 고인에 대하여 통곡하고 후인들에게 남겨 주려는 뜻이 있었을 것이다. 아! 나보다 앞서 천세 만세 동안 사람이 있었고, 나보다 뒤로 천세 만세 동안 사람이 있을 텐데, 내 앞으로 천만세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그 이름을 알지만, 내 뒤로 천만세 동안 있을 사람들은 내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내가 이름을 아는 고인들은 모두 나에게 남겨 준 것이 있으며, 내가 통곡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자취이다.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후인들에게 또한 남겨 줄 것이 있게 되고, 그들이 통곡할 것 또한 나의 자취이다.<sup>7</sup>

위 인용문에 의하면 고인의 자취인 <춘향전>을 보고 그 저자인 고인에 대하여 통곡하고 또한 후인이 자기에 대하여 통곡하도록 자취를 남겨주기 위해서 <춘향전>을 개작, 평점하여 <廣寒樓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성탄이 피력한 “통곡고인(慟哭古人)” , “유증후인(留贈後人)”<sup>8</sup> 에서 주장한 두 가지 동기를 축약해서 다시 인용하고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탄은 소설·희곡의 창작·비평·간행은 인생을 보람있게 하고, 이름을 후세에 길이 남길立功의 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水滸傳>, <西廂記>에 대한 비평을 통하여 문명을 떨쳤고, 세인들의 존경과 문인들의 흠모를 한몸에 받을 수 있었다. 소설·희곡의 비평만으로도 문인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본보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셈이었다. 그러한 金聖嘆의 실천은 조선후기 문인들에게 소설의 창작과 비평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한루기>에서 “춘향의 옥 같은 용모와 얼음 같은 마음, 松竹 같은 절개는 천고의 가인이요, 열녀라고 할 만하네. 만일 施耐菴,

<sup>7</sup> 水山, <廣寒樓記> 「讀法」, 앞의 책, 10 쪽. 作廣寒樓記者 其必有慟哭古人留贈後人之意也 嗚呼自吾以前 而有千世萬世之人 自吾以後 而有千世萬世之人 自吾以前千萬世之人 吾得以知其名也 自吾以後千萬世之人 吾不得以知其名也 吾得以知其名者 則其人皆有所留贈於吾 而吾之所以慟哭者 其人之跡也 吾不得以知名者 則吾亦有所留贈於其人 而其人之所以慟哭者 吾之跡也.

<sup>8</sup> 김성탄, 「유증후인」, <서상기>, 같은 책, 7~9 쪽 참조.

金聖嘆 같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반드시 문학의 장을 펼쳐 우리들의 감상거리를 만들되, <서상기>와 같은 전기에 그치지 않는 걸세”<sup>9</sup>라고 한 것은 바로 <廣寒樓記>의 창작과 비평에 나서도록 金聖嘆의 문학비평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 3. 평점 형식의 도입

평점본 소설이라면 그 기본적인 특징은 평점의 형식을 지니는 것이다. 評點은 ‘評’과 ‘點’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말한다. 點은 곧 圈點을 가리키는 말이다. 관심이 가는 문구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그 옆에 점을 찍어 그것을 관심있게 읽으라고 한다. 評은 논평을 지칭하는 말로 ‘批’라고도 하는데 원작에 붙어있는 위치에 따라 回評, 眉批, 夾批, 旁批로 나눈다. 장회체 작품의 각 회의 앞이나 뒤에 붙어있는 평은 回評이라고 한다. 회평은 각 회의 앞에 붙어있는가, 아니면 뒤에 붙어있는가에 따라 다시 回首評(또는 回前評)과 回尾評(또는 回末評)으로 나누어진다. 회평은 각 회에 대한 종합적인 논평을 하는 면에서 또는 總評, 혹은 總批라고 한다. 본문 중간의 내용에 대한 논평을 할 때 글자의 세로 줄(行) 사이와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고정된 칸 바깥에 있는 위쪽, 왼쪽, 오른쪽 공간을 이용하였다. 구절 중간을 끊고 해당 부분에 대한 평을 작은 글씨 두 줄로 쓴 것은 夾批이고 칸 바깥의 위쪽 여백에 붙이는 평은 眉批이고, 양쪽의 공간에 붙이는 것은 旁批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작품에 붙어있는 序文과 讀法, 凡例, 리으로 불리는 글들도 포함된다.

金聖嘆은 <수호전>과 <서상기>에 대한 평점에서 이러한 評點의 형식을 적극 도입하고, 또한 그에 대한 몇가지 혁신도 하였다. 우선 그는 ‘讀法’이라는 조목을 소설·희곡 評點에 최초로 도입해 독자에게 미리 작품의 내용이나 특징 등을 소개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金聖嘆은 원래 매 회의 끝에 붙어있던 回評을 해당 회의 본문 앞에 옮겨 회수평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여 독자에게 미리 그 회의 내용과 표현적 특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성탄의 비평에서는 한, 두 글자나 한, 두 문구로만 되어 있던 夾批가 수백 자까지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 評點形式에 대한 金聖嘆의 이와 같은 혁신은 후대 評點家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評點批評 형식의 특징으로 정착되었다.

한국의 첫 평점본 소설 <折花奇談>의 형식을 보면 본문 앞에 <序>와 <自序>가 붙어있고 그 뒤에 이어진 본문 3 회의 각 회 앞에 回首評이 붙어있다. 회수평은 해당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그 부분의 구성, 수사법 등을 논평하였다. 소설의 맨 끝에 南華散人の <追序>가 붙어 있다. 전체 작품이 72 면인데 평점 부분인 <서>와 <자서>, <추서>, <回首評> 3 편이 15 면에 달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문의 중간 몇 군데에 또한 眉批가 붙어있고 협비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評點의 기본적 특징을 지닌 초기 評點本 소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특히 <折花奇談>이 평점 형식 중에서도 回尾評을 취하지 않고, 金聖嘆의 독창적인 回首評을 채택한 것이 이 작품이 金聖嘆의 평점 양식을 수용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漢唐遺事>는 본문 앞에 朴泰錫의 <漢唐遺事序>, 梅鶴山人의 <序>, 竹灘書屋의

<sup>9</sup> 雲林樵客, 「廣寒樓記 敍一」, 같은 책, 3 쪽. 春香之玉貌冰心 松竹之節 可謂千古之佳人烈女也 若使施耐菴 金聖嘆之流出於東方 則必鋪張翰墨之場 留爲吾輩清玩 不翅西廂之傳奇

<自序>, 그리고 <凡例>, <讀方> 및 <漢唐遺事 目錄>이 붙어있고, 본문 뒤에 李一九의 <漢唐遺事 序>가 붙어있다. 매 회 앞에 回首評이 있고 본문 중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夾批가 있다. 回首評은 첫줄 맨 앞의 두 칸을 비우는 문단 양식으로, 夾批는 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본문과 구별하였다. 회수평은 88 편이 있고 夾批도 거의 두, 세 문구에 한 번씩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나오고 眉批와 旁批가 보이지 않는 評點本 형식을 취하였다. <한당유사>에서 회미평을 사용하지 않고 회수평을 사용한 것, <讀方>을 최초로 도입한 것, 그리고 협비를 적극 활용한 것 등 특징은 김성탄 평점의 형식적 특징이었다. 그외에도 <石齋外書>라는 부제목을 쓴 것이 김성탄이 <수호전>과 <서상기>를 평점하면서 <聖嘆外書>라는 부제목을 쓴 것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廣寒樓記>는 본문 앞에 <敘一>, <敘二>, <讀法>, 開場詩, <引>이 실려있고 본문에 대한 評點은 주로 回批, 夾批, 圈點 3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回批는 각 회의 본문 앞과 뒤에 붙는 回首評과 回尾評으로 나타나고, 표현이 뛰어난 구절을 圈點한 전형적인 評點本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廣寒樓記>는 金聖嘆의 독창적인 <讀法> 체제를 채택하였다. 이처럼 한국 평점본 소설은 평점 양식에서 김성탄의 문학비평을 직, 간접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비평론의 수용

##### 1) 창작 기법론

金聖嘆이 문학비평을 한 목적의 하나가 바로 구체적인 문학 창작의 기법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호전>과 <서상기>에 대한 평점에서 그는 倒插法, 夾敘法, 草蛇灰線法, 背面敷粉法, 極不省法, 極省法, 鸞膠續弦法, 移堂就樹法, 那輾法, 月度回廊法, 暗渡陳倉法 등 수십종의 독창적인 창작기법을 예문과 함께 제시하고, 그 특징과 사용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文法”론은 한국 평점본소설에도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김성탄에 의해 창안된 용어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서사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수법을 지칭한 ‘鸞膠續弦法’<sup>10</sup>이 ‘煎膠續鸞法’이라는 용어로 변용되어 <廣寒樓記>에서 작품 구성에 대한 분석 설명에 사용되었다. 그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廣寒樓記>의 경우 金聖嘆가 고안한 “문법”만을 답습한 게 아니라 ‘步虛法’, ‘飛雲着樹法’, ‘裁穴法’, ‘錦上添花法’, ‘東映西花法’, ‘靑樓弄珠法’, ‘靑樓轉環法’, ‘警東備西法’ 등 다양한 기법<sup>11</sup>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구체적인 작품 내용과 결합시켜서 분석하였다. 특히 중요하게 제시되는 ‘裁穴法’은 풍수지리에 비유하여 작품 구성에 대한 목적의식과 절정에 대한 강조를 돋보이는 독창적인 기법론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평점본 소설이 김성탄의 창작기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수용보다는 비평을 통하여 창작기법을 추출하고 그 사용법과 효과를 분석 설명하는 김성탄의 비평의식을 수용한 것으로 의미하였다.

<sup>10</sup> 난새의 기름으로 만든 아교를 사용하여 끊어진 활시위를 깔끔하게 접착시키는 데서 나온 말이다.

<sup>11</sup> ‘步虛法’은 문장의 결말을 깔끔하고 여운 있게 마무리 짓는 기법을 말하고 ‘飛雲着樹法’은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조짐을 보여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법이고, ‘靑樓弄珠法’과 ‘靑樓轉環法’은 짐짓 진심이 아닌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떠보는 기법이다. ‘東映西花法’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 묘사 대상을 간접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이고 ‘錦上添花法’은 이미 잘 되어 있는 묘사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기법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인물의 형상화에 사용되고 있다.

## 2) 구성론

金聖嘆은 사건의 시작과 결말의 호응, 각 부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sup>12</sup> 작품의 구체적인 평점에서도 구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하였다.

매 편마다 글이 되고 매 편의 글은 뜻이 있고, 시작이 있고 결말이 있으며, 열리는 부분이 있고 닫히는 부분도 있으며, 서로 호응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갑자기 멈추거나 뚝 떨어진 부분도 있다.

위 인용문에서 그는 매 편의 글이 ‘시작(起)’과 ‘결말(結)’이 있고, ‘열리는 부분(開)’과 ‘닫히는 부분(闔)’이 있으며, ‘서로 호응이 되는 부분(呼應)’이 있고, ‘갑자기 멈추거나 뚝 떨어지는 부분(頓跌)’이 있다고 하고 구성의 유기적 관련성과 다양한 변화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김성탄의 평점에 자주 사용된 용어가 ‘照應’이나 ‘呼應’, ‘伏線’, ‘起伏 등이었고 이들은 조선조의 평점본 소설에도 많이 나타났다. <漢唐遺事>의 평점부분에서 기복이 있고 변화가 많은 구성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sup>13</sup> 각 부분 간의 관계를 夾批에서 수시로 ‘조응한다(‘照應’), ‘멀리서 서로 호응한다(遙遙相應)’, ‘다음 내용의 복선이다(下文伏線)’ 등으로 지적하고 논평하였다. <廣寒樓記>에서도 제 2 회 回尾評에서 “<廣寒樓記> 제 2 회를 보니 문장의 변화가 다양한 것을 알게 된다”<sup>14</sup>고 구성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김한이 이도린을 찾으러 한양에 올라간다는 내용 뒤에 평자는 복선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도린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와 김한과 만나게 되는 부분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김성탄은 구성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여주고 작품의 구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인 예의 하나로 <서상기>에 대한 평점에서 金聖嘆은 각 부분 간의 다양한 구성 방식을 ‘生’과 ‘掃’, ‘此來’와 ‘彼來’, ‘三漸’과 ‘三得’, ‘二近’과 ‘三從’ ‘實寫’와 ‘空寫’ 등으로 정리하였다.<sup>15</sup> 이와 같은 분석에서 구성에 관한 金聖嘆 문학비평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三漸’, ‘三得’, ‘二近’, ‘三從’ 등 용어에서 보이듯이 김성탄은 비슷한 성격의 사건들을 추출하고 숫자로 반복의 횟수를 표기하면서 ‘漸’, ‘得’, ‘近’, ‘從’ 등으로 해당 부분이 사건 전개에서 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같은 성격의 사건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플롯을 전개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인 ‘二近’과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 사건인 ‘三從’의 대립관계를 간파하고 성격이 상반된 ‘近’과 ‘從’의 교차 배치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기복이 있고 변화가 있는 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왜냐하면 ‘문장의 기복과 전도, 변화’ 즉 기복이 있는 구성방식이 독자에게 읽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sup>12</sup> 金聖嘆, <서상기>「讀法」, 같은 책, 권 2, 2 쪽. 一部書有如許纒纒洋洋無數文字, 便須看其如許纒纒洋洋是何文字, 從何處來, 到何處去, 如何直行, 如何打曲, 如何放開, 如何捏聚, 何處公行, 何處偷過, 何處慢搖, 何處飛渡.

<sup>13</sup> 朴泰錫, <漢唐遺事>, 「讀法」, 3-4 쪽. 今此書雖多有段落 而忽起忽伏 正如兵家八陣 皆逐天文氣候山川 向背利害 隨時而行 以正合以奇勝.

<sup>14</sup> <廣寒樓記> 제 2 회, 回尾評, 같은 책, 43 쪽. 今見廣寒樓記第 2 回 則行文曲折.

<sup>15</sup> 金聖嘆, <서상기>, 제 3 장 제 4 회 回首評, 같은 책, 卷 6, 80~85 쪽. 참조.

설명하였다.<sup>16</sup>

김성탄이 제시한 구성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구성기법은 <折花奇談>에서 활용되었다. 石泉主人의 <자서>에서 “몇 번 기약하면 두 번 어기고, 두 번 약속하면 세 번 놓치게 된 것이 마치 귀신이 놀리는 것 같고 하늘이 가르치는 것 같다”<sup>17</sup>고 하는 대목에서 ‘一期’, ‘二違’, ‘二約’, ‘三失’ 라는 표현에서 김성탄의 구성론과 일맥상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주인공이 만남을 이룰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을 <折花奇談>의 평자는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남화자가 말하기를 상하 여섯 편, 세 개 제목에서 만난다는 내용은 아홉번이고 약속해놓고서 깨지는 경우는 여섯번이며, 거짓 꿈을 꾸는 것은 한번이고 진짜 꿈을 꾸는 것은 한번이다. 진심으로 그리워하지만 거짓 꿈으로 이어지고, 짐짓 스스로 끊으려고 하지만 진짜 꿈은 갑자기 이루어진다. (李生은) 처음에 뜻이 있어 노파에게 중매를 해달라고 스스로 청하고, 나중에 뜻이 있어 노파에게 스스로 끊겠다고 한다. 李生을 놓고 볼 때 스스로 중매하고 스스로 끊는 것이다. (노파가) 처음에 마음이 있어 李生의 중매 요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고, 나중에 정이 없어 李生을 엄하게 꾸짖는 것이다. 노파를 놓고 볼 때 중매를 받아들이는 것과 엄하게 꾸짖는 글이 있다. …… 舜梅를 보자 李生은 스스로 고백하고, 舜梅를 다시 보았을 때 李生은 다시 고백한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두 번으로 서로 멀리서 호응한다. 노파가 한번 기약하는 것이 거짓 기약이고, 李生이 한번 놓친 것은 진짜로 놓친 것이다. 한번 꿈꾸는 것은 현실과 비슷하면서도 현실이 아니고, 정작 만났을 때 꿈이 아니면서도 꿈과 비슷하다. ……前後中終에 간간이 서로 대응하고 먼 곳까지 서로 이어져있다.<sup>18</sup>

위 인용문에서 평자는 작품 전체를 여섯 편,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고 사건의 핵심이 되는 약속과 만남을 따지면서 작품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작품의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비슷하거나 대립되는 내용들을 찾아내서 꿈의 ‘眞’과 ‘假’, 노파에게 李生의 ‘自媒’와 ‘自絶’, 이생에 대한 노파의 ‘納媒’와 ‘峻斥’, 舜梅에게 李生의 ‘自媒兩遭’로 정리하면서 각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서로 대응하고 연관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은 인물에게 ‘自媒’와 ‘自絶’, ‘納媒’와 ‘峻斥’과 같은 대립적인 행동을 나타내 구성의 급격한 변화와 반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러한 구성을 통하여 평자는 “意趣가 무궁하고 情緒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sup>19</sup> 흥취와 재미를 배가시키는 효과를 얻었다고 지적하였다. 구성에 대한 관심은 한국 평점본 소설에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 3) 인물론

<sup>16</sup> 金聖嘆, <서상기>, 제3장 제3회 回首評, 앞의 책, 卷6, 49쪽. 文章之妙, 無過曲折. 誠得百曲千曲萬曲, 百折千折萬折之文, 我縱心尋其起盡, 以自容與其間, 斯眞天下之至樂也.

<sup>17</sup> 石泉主人, 「자서」, 앞의 책, 5쪽. 一期二違 二約三失 如鬼弄揄 如天指導.

<sup>18</sup> 南華散人, 앞의 책, 제1회 回首評. 南華子曰 上下六篇三題 見面者爲九 有約不偕者爲六 假夢者爲一 眞夢者爲一 眞心相思 假夢相接 假心自絶 眞夢忽圓 先有意而自媒於媼 後有意而自絶於媼 以一李生而有自媒自絶之文 先有心而納媒於生 後無情而峻斥於生 以一老媼而有納媒峻斥之文 …… 梅之一見以生自媒 梅之再見 又以生自媒 自媒兩遭 遙遙相對 媼之一期爲眞期 生之一失爲眞失 一夢而似眞非眞 眞見而似夢非夢 …… 前後中終 間間相對 遙遙相連.

<sup>19</sup> 南華散人, 앞의 책, 제3회 回首評. 意趣無窮 情緒備悉.

김성탄의 문학비평에서 인물론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우선 그는 핵심인물론을 제기하였다. 즉 그는 한 작품에 아무리 등장인물이 많다 하더라도 핵심인물은 오직 한 명이라는 중심인물론을 제기하고 많은 인물 중에서 金聖嘆은 일단 張生, 鶯鶯, 紅娘 세 인물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인물들이 도구라고 지적하고 세 인물의 위상과 역할도 “雙文은 제목이요, 張生은 문자이며, 紅娘은 문자의 起承轉습이다.”<sup>20</sup> 라고 각기 다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그런 전제 하에서 “더 자세하게 따지자면 <서상기>는 사실 鶯鶯 한 사람만을 묘사하는 것” 이라고 1 인 즉 鶯鶯이야말로 <서상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핵심 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도 정성을 들여서 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핵심 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도 정성을 들여서 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원인을 그림에 비유하면서 설명하였다.

烘雲托月의 법을 일찍 본 적이 있는가? 달을 그리려고 하지만 달을 그릴 수 없어서 구름을 그린다. 구름을 그리되 뜻이 구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뜻이 구름에 없는 것은 물론 뜻이 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이 구름에도 있어야 한다. 구름을 그리는 데서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질게 나오거나 연하게 나오면 구름의 흥이 된다. 구름의 흥은 곧 달의 흥이 된다. …… 雙文을 묘사하려고 하나 묘사할 수 없으므로 쌍문을 접어두고 먼저 張生을 쓰기 시작한다. 이것은 화가의 이른바 烘雲托月의 비법이다.<sup>21</sup>

위 인용문에서 김성탄은 화가들이 달을 그리기 위하여 구름을 그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듯이 핵심인물을 잘 형상화하기 위해서 관련이 밀접한 인물도 뛰어나게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에서 주변의 구름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달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듯이 주변 인물의 이미지와 형상화의 성공여부가 핵심인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金聖嘆의 중심인물론에 대한 수용은 <廣寒樓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작품에서 춘향과 다른 인물, 배경 등을 각각 실체와 그림자에 비유하여<sup>22</sup> 춘향만이 <廣寒樓記>의 핵심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평자는 또한 금강산을 그리는 것에 비유하여 핵심 인물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책에서 남원의 빼어난 경치를 서술한 것은 동해를 그린 것이요. 李桃隣의 풍류와 문채를 서술한 것은 바다 위의 여러 봉우리를 그린 것이요, 情을 서술하고 이별을 서술한 것은 물과 바위를 그린 것이요. 元崇 등 여러 인물을 묘사한 것은 숲 속의 절을 그린 것이요. 芙蓉 등의 여러 기생을 묘사한 것은 구름 속의 庵子를 그린 것이다. …… 춘향의 아름다운 자태와 곧은 정절을 서술함에 있어서, 앞에서 맞이하고 뒤에서 배웅하며, 왼쪽에서 응대하고 오른쪽에서 조용함으로써 마치 비로봉이 아득하게 우뚝 솟아있는 것과 같았다.

금강산을 그리는 데 비유하자면 춘향이 최고봉인 비로봉이고 다른 인물에 관한

<sup>20</sup> 金聖嘆, <서상기>「讀法」, 앞의 책, 卷 2, 19~20 쪽.

<sup>21</sup> 金聖嘆, <서상기> 제 1 장 제 1 회의 회평, 앞의 책, 卷 4, 10~12 쪽. 亦嘗觀于烘雲托月之法乎? 欲畫月也, 月不可畫, 因而畫雲. 畫雲者, 意不在雲也; 意不在于雲者, 意故在于月也. 然而意必在于雲焉, 于雲略失則重, 或略失則輕, 是雲病也. 雲病則月病也…… 將寫雙文, 而寫之不得, 因置雙文勿寫而先寫張生者, 所謂畫家烘雲托月之秘法.

<sup>22</sup> 小广主人, <廣寒樓記> 제 4 회 回首評, 앞의 책, 56 쪽.

묘사는 모두 그의 미모와 정절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배경이고 그를 ‘前迎’, ‘後送’, ‘左側’, ‘右應’ 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역시 繪畫技法을 빌려서 인물형상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중심인물의 핵심적인 지위를 다시 확인하면서도 주변 인물도 필수적이고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김성탄의 주장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聖嘆이 또한 인물 형상화에 있어 개성론을 적극 주장한 것이 비평사적으로 큰 발전이다. <수호전> 평점에서 그는 <수호전>에서 서술하고 있는 108 명의 인물들은 각자 성정이 다르고, 각자 기질이 다르고, 각자 외모가 다르며, 각자 말투가 다르다고 개성적으로 형상화되어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sup>23</sup> 구체적으로 金聖嘆은 각자 다른 성격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각 인물의 서로 다른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인물을 핏진하게 형상화할 수 있다고<sup>24</sup> 제시하였다. <廣寒樓記>에서도 각 인물의 신분과 처지에 맞는 합리적이고 개성적인 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춘향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와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진 인물들은 각기 다른 심리를 갖게 되었는데 “제각기 글을 이루고 서로 모방하지 않으니, 정말 서사의 묘품이다”<sup>25</sup>라고 춘향의 수감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각기 다른 입장과 행동을 절실하게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현실감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折花奇談>, <漢唐遺事>, <廣寒樓記> 세 작품을 <서상기>, <수호전>으로 대표되는 김성탄의 문학비평과 창작, 비평의 동기, 평점의 양식, 구체적인 비평론에 대하여 비교 고찰하여 조선조의 평점본 소설과 김성탄 문학비평 간의 관계를 검토해보았다. 동기는 작품을 산출하는 내적인 원동력이라면 평점이라는 형식은 평점본 소설이라는 독특한 문학작품의 갈래를 정의하는 외적인 특징이며 비평론은 평점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내적인 비평을 할 수 있는 문학론의 진전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후기의 문인들은 김성탄이 제기한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소설, 희곡을 창작, 비평하는 주장에 공감하고 수용하며 김성탄 자신의 실천과 성공에 고무되어 평점본 소설의 창작 욕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김성탄은 <서상기>, <수호전>에 대한 평점을 통하여 조선문인들에게 평점 형식의 본보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제 창작의 욕구도 생기고, 평점의 형식도 익혔고, 남은 것은 평점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는 것인데 조선 문인들은 김성탄의 문학비평에서 창작 기법론, 구성론, 인물론 등 다양한 비평론도 적극 수용하여 평점본 소설을 창작하였다. 김성탄 문학비평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으로 형성된 조선후기 평점본 소설은 본격적인 소설비평의 형성, 발전을 의미하고 소설론의 최고수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고대비평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물론 조선후기의 평점본 소설은 김성탄 문학비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한, 중, 양국 작품의 비교 비평, 새로운 창작기법의 제시, 새로운 비평 수법의 사용, 민족문학관의 발현 등을 통하여 金聖嘆 문학비평에 대한 변용과 발전양상도

<sup>23</sup> 金聖嘆, <水滸傳> 「序三」, 앞의 책, 권 1, 11 쪽. <水滸>所敘, 敘一百八人, 人有其性情, 人有其氣質, 人有其形狀, 人有其聲口.

<sup>24</sup> 金聖嘆, <서상기> 제 1 장 제 2 회 협비, 앞의 책, 卷 4, 45 쪽 참조.

<sup>25</sup> <廣寒樓記>, 제 6 회 回尾評, 89 쪽. 芙蓉自有芙蓉心事 牧丹自有牧丹心事 月梅自有月梅心事 金漢自有金漢心事 各各成文 不相蹈襲 真是敘事妙品.

나타냈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소설 창작과 비평의 활성화에 중국문학의 역할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을 생략한 것을 밝혀둔다.

본 논문은 산동대학교 인문사회과학청년성장기금 지원 과제인 “한국문화와 중국문화”의 연구논문이다.

### <참고문헌>

- 水山先生, <廣寒樓記>, <廣寒樓記 역주 연구>, 박이정, 1997
- 朴泰錫, <原文 和漢對照 漢唐遺事>, 朝鮮研究會, 1915
- 鄭良婉, <일본 동양문고본 고전소설해제>, 국학자료원, 1994
- 施耐菴 著, 金聖嘆 評, <繪圖增像 第五才子書水滸傳>, 成均館大 도서관 소장본
- 王實甫 著, 金聖嘆 評, <懷永堂本繪像第六才子書>, 成均館大 도서관 소장본
- 金東旭, <증보 춘향전 연구>, 연세대 출판부, 1976
- 林明德, <韓國漢文小說全集>,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0
- 金豊起, 「水山 廣寒樓記의 評批에 나타난 批評意識」, <高麗大語文論集> 31, 1992
- 李文奎, <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2
- 簡鎬允, <韓國 古小說批評 研究>, 景仁文化社, 2001
- 이상구, 「<廣寒樓記>의 개작 방향과 작가의식」, <順天大語學研究> 9, 1998
- 孫琴安, <中國評點小說史口>, 上海社會科學出版社, 1999.
- 魏中林 외, 「20 世紀金聖嘆小說戲曲理論研究」, <學術研究> 2001-2
- 大谷森繁,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
- 鄭夏英, 「<廣寒樓記口 研究>」, <梨花語文論集> 12, 1992
- 趙惠蘭, 「漢唐遺事 연구」, <한국고전연구> 창간호, 한국고전연구회, 1995
- 金庚美, 「19 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제 1 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학연구소, 2000
- \_\_\_\_\_, <조선후기 소설론 연구>, 梨花女大 박사논문, 1994
- 이수진, 「折花奇談 소고」, <영남한문학> 15 집, 1988.
- 정길수, 「折花奇談 연구-19 세기 애정전기 전통의 계승과 변용」, 서울대 석사논문, 1999.
- 林 崗, <明清之際小說評點學之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9
- 洪尙勳, 「金聖嘆과 동아시아 서사 이론의 기초; 金聖歎의 小說 評點」, <현대비평과 이론> 9, 1995
- 韓 梅, <조선후기 김성탄 문학비평의 수용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2